

#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뭐예요?





# CONTENTS

## 제1영역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01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요?
- 02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 03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관계인가요?

## 제2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 04 지속가능발전에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요?
- 05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의한다면?
- 06 지속가능발전과 교육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07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은 어떤 관계인가요?
- 08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 09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10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 11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발행일 2006. 2  
 발행처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발행인 이진  
 편집인 유문중  
 기획 윤경효, 김종태  
 편·저자 이재영, 이선경  
 자문 윤여창, 정병준, 이재준  
 편집 (사)녹색환경연구소  
 인쇄 (주)그린페이지(tel.02-538-1424)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2006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3층 전화02-358-1133 팩스02-358-2253 www.la21.or.kr

이 자료집은 환경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집의 내용은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에서 지원하여 이루어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전략 개발 연구」(이선경·이재영·이순철·이유진·민경석·심숙경, 2005)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요약·발췌 및 재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제3영역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D

- 12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이 무엇인가요?
- 13 유엔은 왜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지정하게 되었나요?
- 14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 15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 16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 17 외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18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나요?

## 제4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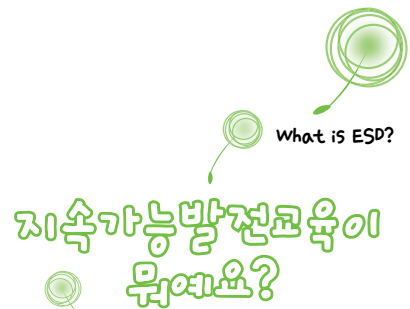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 19 학교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20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21 시민사회단체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22 기업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23 대학, 연구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부 록

- 퀴즈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주요 웹사이트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최근 소식





##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를 펴내며...

지난 2002년 12월, 제57차 UN 정기총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지정, 선포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중 제36장의 '교육, 연수, 홍보'에 관한 내용이 지난 1997년(리우+5) 중간 평가에서 가장 성과가 부진한 영역 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구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 처음으로 제안돼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에 대응하여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실행전략 개발 연구」(2005) 보고서를 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방의제21은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이며, '교육'은 지방의제21 추진의 활성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나 등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교육방법의 전환이든 개념에 대한 홍보든 어느 것 하나 지방의제21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공동의 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써 지방의제21은 이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지방의제21 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에서의 실천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교재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궁극적으로 지방의제21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바쁜 일정에도 뜨거운 열정과 예리한 시각으로 원고를 집필해 주신 공주대 이재영 교수님과 청주 교대 이선경 교수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의 정병준 사무처장님과 군포의제의 윤여창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

2006. 2.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제이영역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01



##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지구적인 규모의 환경 회의라 할 수 있는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환경만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쟁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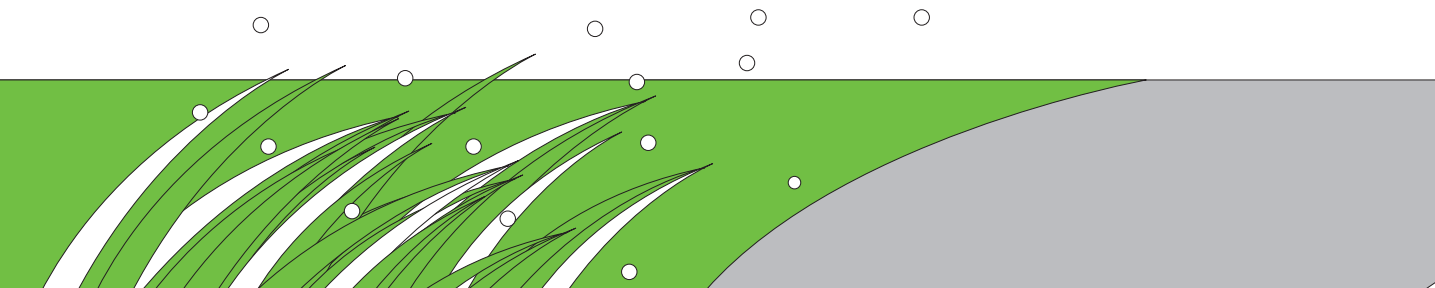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가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일명 브룬트란드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

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1991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공동으로 「지구를 아끼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인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은 진화하였으나 핵심 내용은 '지구 생태계의 한계'와 '여러 주체간의 형평성(equity)'이다. 즉, 선진국과 후진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생물 등의 형평성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서는 환경 보전은 물론 사회 정의, 환경 정의, 경제 정의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계의 수용 능력 안에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지속가능발전에서 흔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사회, 환경, 경제의 세 가지이다. 이 세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회적 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역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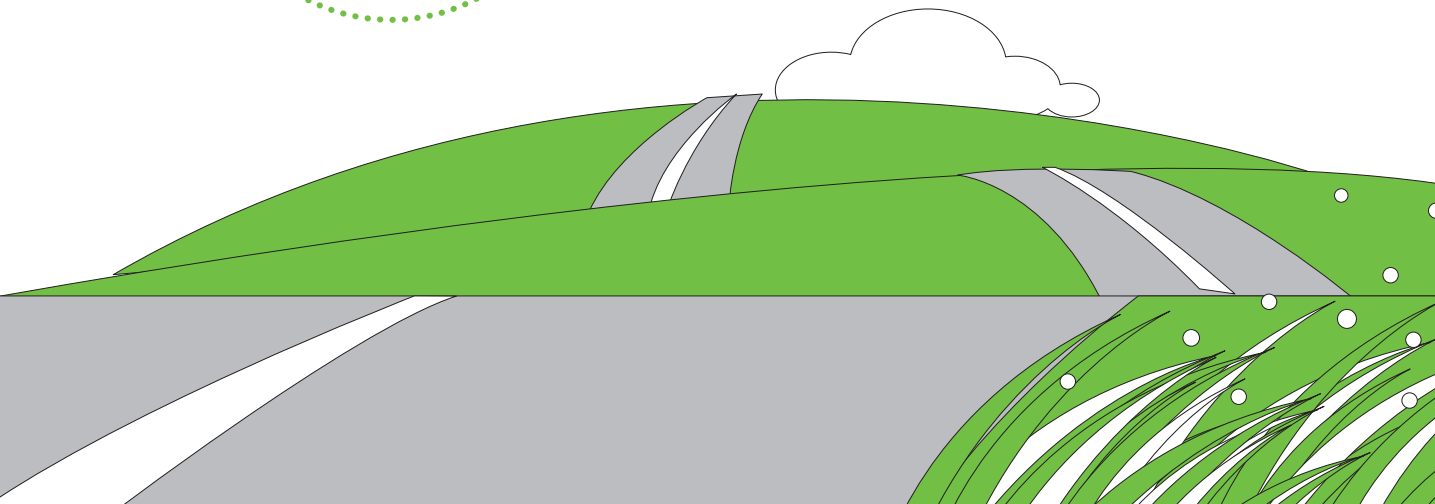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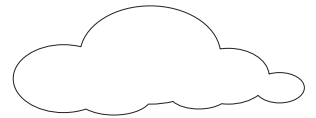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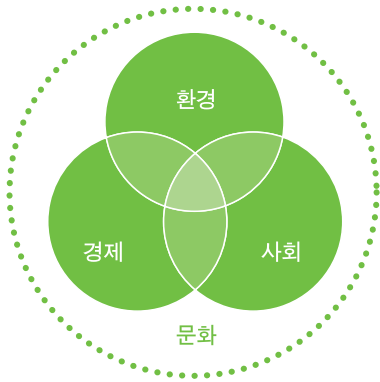
사회, 환경, 경제 세 분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상호작용이다. 지속가능발전에서는 현 상태의 유지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 빈곤 극복과 사회정의의 추구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가난과 무력감을 해소하는 것이 환경보호만큼이나 인류의 미래에 중요하다. 이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 문화적 관점의 강조

사회, 환경, 경제의 세 분야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결을 위한 토대와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는 인간 발전의 소프트웨어로서 관습, 정체성, 가치 등이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03



##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관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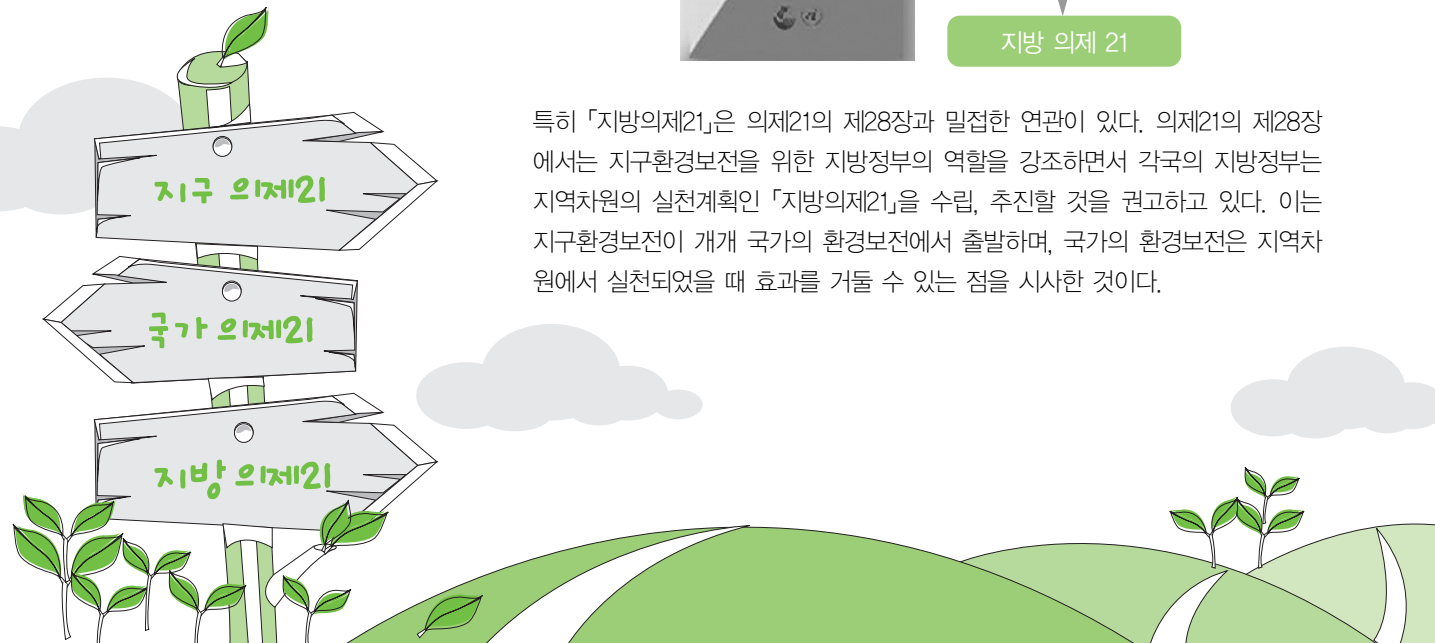
1972년 스톡홀름에서 지구적 규모의 환경회의가 처음 열리고 난 뒤, 20년이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많은 국가의 대통령 또는 수상이 참여하여 지구정상회의라고 불렸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 21)<sup>1)</sup>이 채택되었다. 참가국들이 합의한 의제21은 지구적 수준의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은 물론이고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 의제(Agenda)란 회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의제21이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의 묶음을 말한다.



특히 「지방의제21」은 의제21의 제28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의제21의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수립,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이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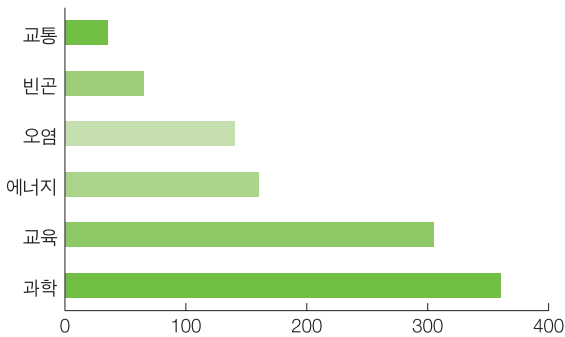


제2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 지속가능발전에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요?



「의제21문서에 나타난 용어의 빈도 비교」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참여 주체, 역할과 관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모델이 다르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달라진다. 그러나 핵심적 쟁점은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 이용에 있어서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적 요소, 즉, 개인, 기관, 국가, 지역, 사회·정치적 집단 등의 권리와 책임, 역할과 관계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이 어떻게 해석되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며,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제36장 '교육, 대중인식, 훈련'은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함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의제21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이 303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156), 오염(138), 빈곤(64), 교통(29) 등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빈도이며, 과학(358)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 이므로,  
사람에 대한 '교육' 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의한다면?

지속가능발전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영국에서 작성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계획 초안」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나 지구적으로, 지구의 미래에 해를 주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지식, 기능, 이해와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발전교육 아시아 지역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고 향유하기 위한 책임감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004년 발간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 이행계획 초안」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전략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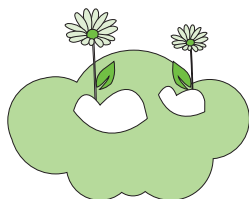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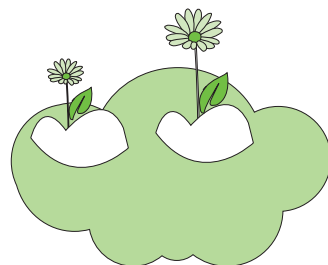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SD)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내용, 절차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다. 즉,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D)

시민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며, ①은 ②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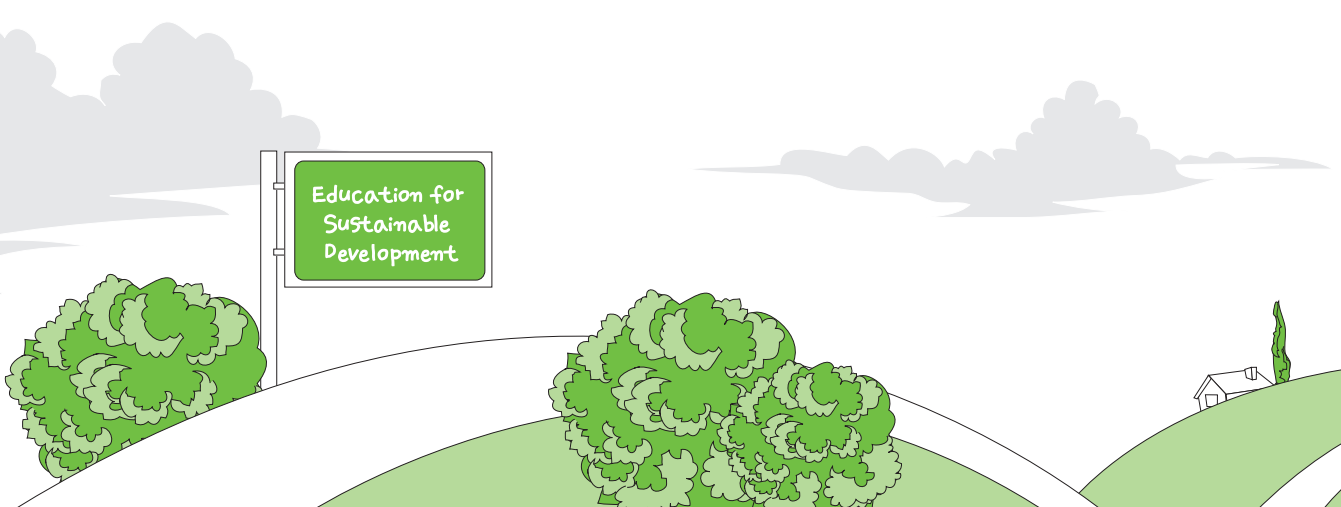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 이행계획 초안」(2004) 중에서



## 지속가능발전과 교육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의 획득과 확산을 촉진하는 전략의 핵심이다.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역할	세부내용
주인 의식 강화	지구적 규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	사회에 대한 비전을 현실로 옮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최우선적인 동인이 되게 한다.
가치, 행동과 생활양식 변화 촉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요구되는 가치, 행동, 생활방식을 촉진한다.
장기적 관점과 의사 결정 능력 학습	모든 공동체의 평등, 경제, 생태 등 장기적 미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미래 지향성 제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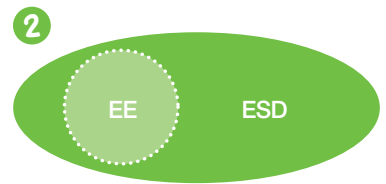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은 어떤 관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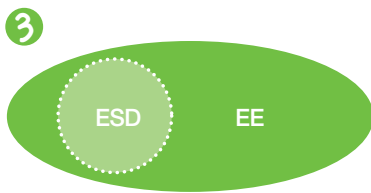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분야가 환경이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있어서도 환경교육(Education for Environment, EE)의 내용이나 전통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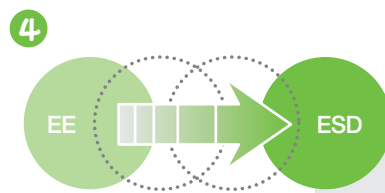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기존의 환경교육 사이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독자적인 영역도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환경교육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환경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영역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교육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입장이다. 환경교육 중에서 특히 경제개발과의 균형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교육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통합적으로 진화한 결과이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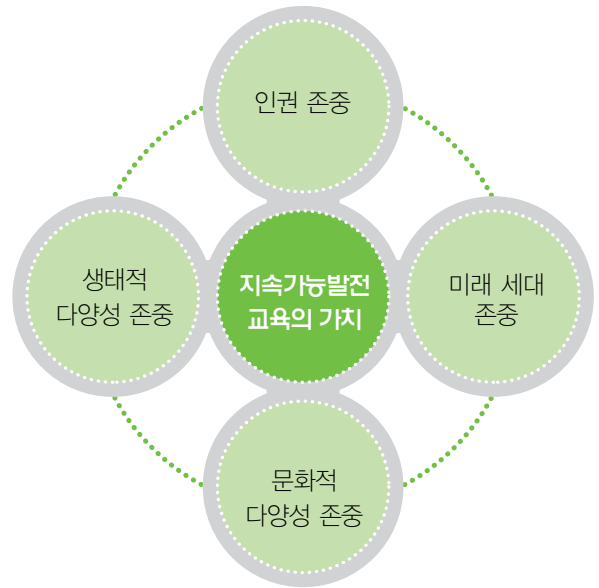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을 변화·증진시키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며, 인권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이 그 핵심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개인, 집단, 사회 또는 국가가 중시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진단하여, 지역에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핵심가치	세부내용
인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li> <li>•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위한 헌신</li> </ul>
미래 세대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세대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li> <li>• 세대간 책임 중시</li> </ul>
생태적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생태계 보호와 복원</li> <li>• 다양한 생명공동체 존중 및 배려</li> </ul>
문화적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다양성 존중</li> <li>• 지역적·지구적으로 관용, 비폭력, 평화의 문화 마련</li> </ul>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질적으로 우수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교수학습 과정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 가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자하는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sup>2)</sup>'의 6개 목적 및 이행과정의 관심분야들을 반영한다.

2) 만인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 :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성인문맹을 크게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칭한다. 1990년 태국 중티엔 회의(World Conference of Education for All)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세네갈의 다카르 회의(World Education Forum)에서 목표가 보다 구체화되고 실행 체계(Dakar Framework for Action)도 채택되었다. 6개의 목표는 유아교육과 보육 확대, 2015년까지 양질의 무상의 무 초등교육 제공,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기술 습득 증진, 2015년까지 성인문해 50% 향상, 2005년까지 교육에서 성차별 철폐 및 2015년까지 양성평등 성취, 교육의 질 향상 등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간학문적·총체적 접근

하나의 학문영역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가치 중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여러 가치와 원칙을 명시하여 공개적으로 검토·논쟁·검증·응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딜레마와 비판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도록 한다.

### 다양한 학습 방법

글, 예술, 드라마, 토론, 직접경험 등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들이 함께 배우고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한다.

### 참여적 의사결정

교육방법 결정 과정에 학습자도 참여한다.

### 지역적 관련성

지구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지속가능발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당사자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지방,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 사회문화적 관점

- 인권
- 평화, 안전
- 양성 평등
- 문화적 다양성(문화상호간 이해)
- 건강과 에이즈
- 거버넌스

### 환경적 관점

- 자연자원(물, 에너지, 농업 등)
- 기후 변화
- 농촌 개혁
- 지속가능한 도시화
- 재해 예방 및 완화

### 경제적 관점

- 빈곤 퇴치
- 기업의 책무
- 시장 경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쟁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쟁점들은 이미 여러 국제회의에서 파악되었지만, 각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이 된다.

이들 쟁점은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물, 폐기물 문제와 고용 및 실업, 인권, 양성평등, 평화, 안보 등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빈곤 퇴치, 기업의 책무 등 경제적 쟁점도 중요하며, HIV/AIDS, 이민, 기후 변화, 도시화 등은 여러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교육 전략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교육 개혁만으로는 이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다른 영역의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네스코가 작성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 이행계획 초안」에서는 왼쪽의 표와 같은 영역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내용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비중도 달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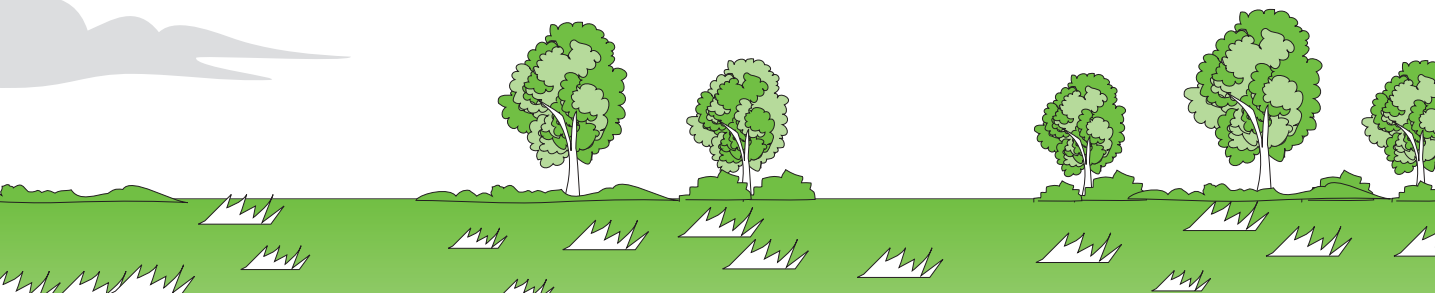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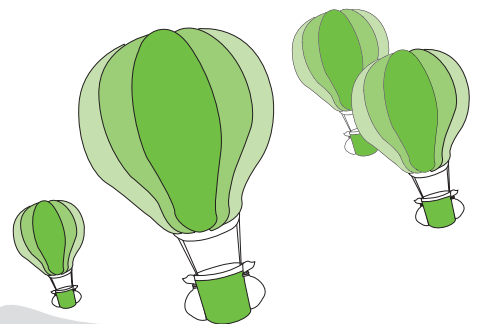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고 언제 어디에 있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지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환경 격언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습 기회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교육과 교과 외의 모든 활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특정한 교육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모든 일상의 활동이나 경험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관점을 지향한다.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전문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풀뿌리단체</li> <li>• 지역 시민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직업 교육 기관</li> <li>• 교사 연수 기관</li> <li>• 교육 자문 및 감사</li> <li>• 행정 및 정책 결정 기구</li> </ul>
<p>→ 좁은 의미의 교육을 넘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li> </ul>		





제3영역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D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SD)’ 이 무엇인가요?

2002년 12월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D)」으로 지정·선포하였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은 유엔의 다른 교육관련 사업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sup>3)</sup>, 만인을위한교육(Education for All), 유엔 문해력 10년(UN Literacy Decade)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은 2005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정식으로 개시되었으며, 계획이 실행된 지 5년 후(2010년)에 중간 평가를 하고 10년이 지난 직후(2015년 초) 국제회의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기간동안 매년 구체적인 주제를 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주제로는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적 다양성, 건강과 삶의 질, 물과 에너지, 배움터로서의 생태계와 세계 유산, 지식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 계획, 세대간 정의와 윤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006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사막화 사막화의 해이다. 사막화 역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3)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빈곤을 줄이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9월 새천년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한 의제들로, 8개 목표(Goals)와 15개 달성 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을 목표로 한다. 8개 목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 근절,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권 강화, 어린이 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증진, 에이즈·말라리아·기타 질병 퇴치,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발전을 위한 지구적 협력관계 개발 등이다.



# 유엔은 왜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지정하게 되었나요?

1992년 리우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은 리우 선언과 함께 의제21을 채택하였고, 의제21의 제36장에는 '교육, 연수, 홍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우 회의가 열리고 5년이 지난 1997년(리우+5) 중간 평가에서 지난 5년 동안 가장 성과가 부진한 영역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평가되었고, 교육 분야의 부진이 계속될 경우 지속가능발전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2년 '리우+10 회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구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이 제안되었다. 그 후 2002년 12월 제57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이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이 채택·선포되었으며, 유네스코를 선도 기구로 지정하였다.

2004년 유네스코는 각 나라, 지역, 전지구적인 수준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이행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에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가치, 실재를 모든 교육과 학습에 통합' 하는 것으로, '교육적 노력을 통해 환경 보전, 경제적 발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로 구현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지정하게 된 의도는 '각 정부들이 각 교육체계 내에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 발전 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관련 사업에 시민사회와 다른 관련 주체를 끌어들이거나 협력하여,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하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형태의 교육, 대중 인식, 연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형성하고 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교육과 학습이 지속가능발전 추구의 핵심이 되게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보다 원활한 네트워크, 상호교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
-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하여 각국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더 잘 달성하도록 돕는 것
- 넷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각 국의 교육개혁 노력 속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네 가지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는데, 질 높은 기본 교육의 수혜 기회 증진,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향, 대중의 이해와 인식 증진, 연수 제공 등이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홍보(advocacy)와 비전 설정**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설정·공유하게 한다. 이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 되게 한다.

**참여 및 주인의식(ownership)** 지속가능발전은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단계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정책형성과 실행 및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파트너십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국가-정부-시민사회 등의 협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및 프로젝트와의 관련을 찾는 일, 경험과 정보의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교환 등이 중요하다.

**역량 강화 및 연수** 파트너와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역량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제공한다. 강화될 역량에는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및 인식 증진 기능, 계획·관리·평가 등의 수행 능력이 포함된다.

**연구 및 혁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긴급하게 언급해야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결과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ICT의 활용** ICT<sup>4)</sup>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연결·유지하고, 관련된 자료 저장, 정보와 뉴스의 신속한 공유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하여 2년마다 질적·양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중에게 홍보한다.

4)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란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정보 기기의 하드웨어 기술,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





## 지속가능발전교육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주요 실행 과제는 각 추진 단계에 따라 다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단계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시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당사자와 국가 수준의 조직을 파악하여 최초의 협의회 개최</li> <li>•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필요한 실행 경비를 산정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 메커니즘 구축</li> <li>•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비전과 목표 설정</li> <li>• 의사소통과 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li> <li>• ESD와 기존 교육활동의 통합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실시</li> <li>• 부처간, 시민사회, 민간 부분 및 NGO와의 협력을 위한 틀 구축</li> </ul>
실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 계획 개발, 실행</li> <li>• 효과적인 ESD 교수학습 전략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교원 양성 과정과 현직 연수에 ESD 관련 내용 포함</li> <li>•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의 모든 영역에 ESD 연계</li> <li>• 시/군/구 수준에서 특정한 시범 프로젝트 계획, 시작</li> </ul>
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의 대상,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협의</li> <li>• 국가 DESD 목표에 근거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와 모니터 과정 수립</li> <li>•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유엔에 보고할 계획 수립</li> </ul>





# 외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005년 3월 현재

국가명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E가 중심이 되어 ESD 관련 정책 제안서와 연구물 발간</li> <li>• 2005년 3월 DESD 착수식 거행, 지속가능발전교육조정위원회 설립</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와 환경청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상당한 발전</li> <li>• 대부분의 ESD가 환경교육에 가까운 주제와 내용이 많음</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SD 실행계획안대로 실행 중, DESD 국제이행계획 충실히 반영</li> <li>• 2003년 7월, 독일유네스코위원회는 DESD 실행을 위한 국가수준의 실행계획안 제출</li> <li>• 2004년 독일의회는 독일연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실행계획안 확정, 독일유네스코위원회를 실행선도기관으로 지정</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럼과 PCSD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인 프로그램 마련</li> <li>• 다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위원회의 영향력이 큼</li> <li>• 비공식 교육과 공교육의 조화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성 교육을 도입하고, 평생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영역들을 강조</li> <li>• 기초교육 강화를 통한 문맹퇴치와 과학기술 관련 지식 보급 및 확보</li> <li>• 4만 여명이 토론과 논쟁 등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의제 수립</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한 주제로 다룸</li> <li>• 발탁해 지역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li> <li>• 학생들과 시민들로 하여금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동 창작자가 되는 능력 길러줌</li> </ul>

국가명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단(SDEP)이 결성되어 5년 동안 핵심적 기여, 현재 ESD 실행계획안을 마련</li> <li>• 사업추진에 있어서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ESD는 EE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DESD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li> <li>• 주제 중심의 ESD 전략이 점차적으로 우세한 실정이며, 녹색학교 등은 학교에서의 ESD와 관련해 참고할 사례</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2002-2006)과 교과과정 개혁에 바탕</li> <li>• 산간지역에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추진</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도에 이미 기존의 ESD 관련 교육과정, 학습 자료, 전문적 연구, 사례연구, 모범적 실천 등 자료화 및 전파</li> <li>• 국가차원에서 개괄적인 틀을 잡고 실천주체들이 실행계획을 마련</li> <li>• 실행과정과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참여적인 방식</li> </ul>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냐의 당면과제인 빈곤극복, 양성평등, 건강증진, 환경보존과 보호, 농촌 변혁,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평화, 재난대비 등에 초점</li> <li>• 빈곤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교육을 ESD의 주된 내용으로 규정</li> </ul>

PCE 의회환경국(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  
 ESD 지속가능발전교육  
 DESD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PCSD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E 환경교육

# 18



##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대표적인 곳은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다.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국가 추진전략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향후 출범할 제4기 위원회에서는 이에 근거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네스코가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선도하는 기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선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협동학교와 교사 연수를 통해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과 연결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국제이해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005년 9월에 열린 제7회 전국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지역의 의제21 추진기구도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2년에 국가 수준에서 적용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에 대비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작성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지속가능발전교육 담당관을 배치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영역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 학교와 지속가능발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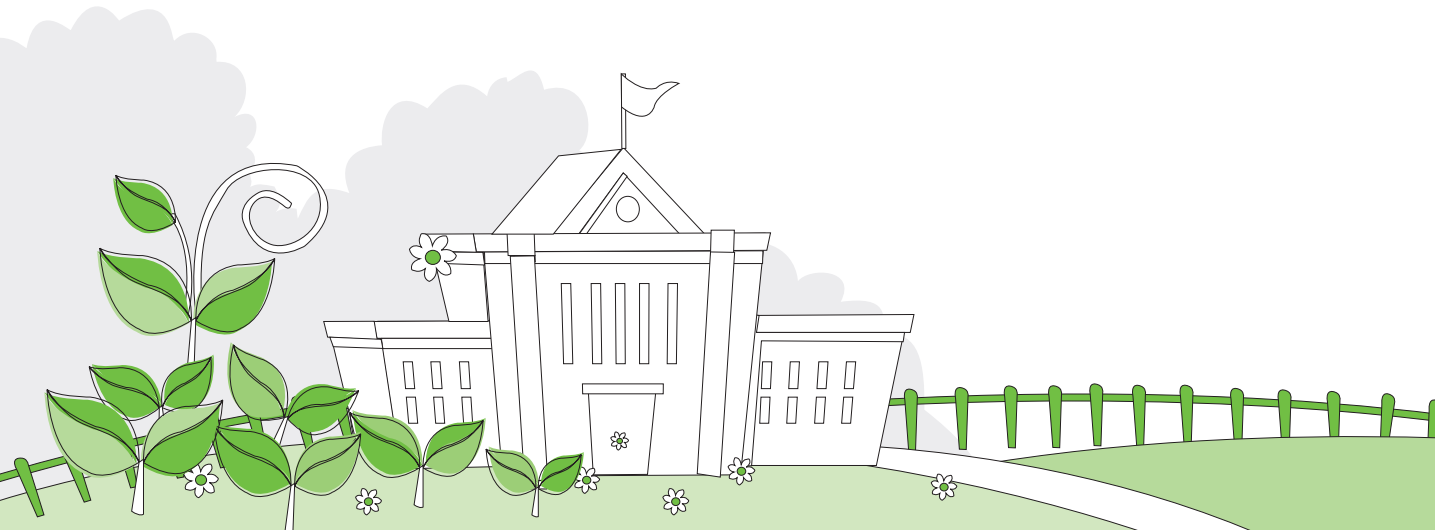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입시제도 전반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교육청이나 교사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들과 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단기 집중 연수가 시급하다.

학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인권, 평화, 통일, 환경 등과 같은 내용은 범교과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도 각 교과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교과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주제들도 많아 이들이 교과 내에서 중점적으로 접근되기 어려우며, 관련 주제들이 산발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들 내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환경보전시범학교, 학교 숲 운동, 유네스코협동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들 사업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개의 교과 또는 내용 영역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전체의 지향으로 삼아야 하며, 학교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학교 전체 수준의 프로젝트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홍보와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외의 경우 전체 324개의 사업 중 홍보와 교육 관련 사업이 192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홍보와 교육 사업들은 주로 환경, 인권, 빈민, 평화 등 부분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구성원의 역량 강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내용과 시스템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제21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활동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과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가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각 지역사회의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제21의 교육 분야 실천 정도

단위: 빈도(%)

구분	교육					평균 / 전체빈도
	전혀 실천하지 않음	조금 실천함	보통	비교적 많이 실천함	매우 많이 실천함	
시	6(13.6)	5(11.4)	23(52.3)	9(20.5)	1(2.3)	2.9 / 44
군	3( 6.4)	9(19.1)	20(42.6)	14(29.8)	1(2.1)	3.0 / 47
구	2( 6.7)	6(20.0)	11(36.7)	10(33.3)	1(3.3)	3.1 / 30
광역	1( 8.3)	-	5(41.7)	6(50.0)	-	3.3 / 12
합계	12(9.0)	20(15.0)	59(44.4)	39(29.3)	3(2.3)	3.0 / 133

\*출처 : 환경부(2001). 지방의제21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시민사회단체와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교육은 환경교육, 인권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총체적인 연계는 부족하다. 특히 환경교육은 각종 생태기행, 환경캠프 등의 사업을 확산시키고 주도해왔으나 자연생태체험 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강조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양한 각 영역의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업과 활동들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개념을 통합하여 재정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지도자 연수는 필수적이다.

또한 여러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교육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에서 의사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략에는 소외계층 교육 기회와 기본 문해력의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현재 운영중인 야학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도시 등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중점을 취미, 교양 교육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차원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기업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학교나 사회 여러 영역, 여러 수준의 네트워크나 연대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제 시장의 투자와 관련 지속가능성 지수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경영 또는 사회책임경영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산업계 카운터파트이며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한국측 파트너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체들의 협의회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있다.

현재 기업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없고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직원경력개발, 리더십, 퇴직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한 우수 사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널리 알리고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과 과정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환경경영체제, 환경보고서, 환경성과평가, 인권교육, 윤리교육)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과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사회책임투자 및 연기금 법제화 등과 연계하여 기업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유인을 경험할 수 있어야 기업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인적 자원부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등 부처간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정부 단위의 거점센터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관련 예산 및 법규 등 제도적 기반, 장기적(5-10년)으로 전체 틀을 주도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 및 실무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 대학, 연구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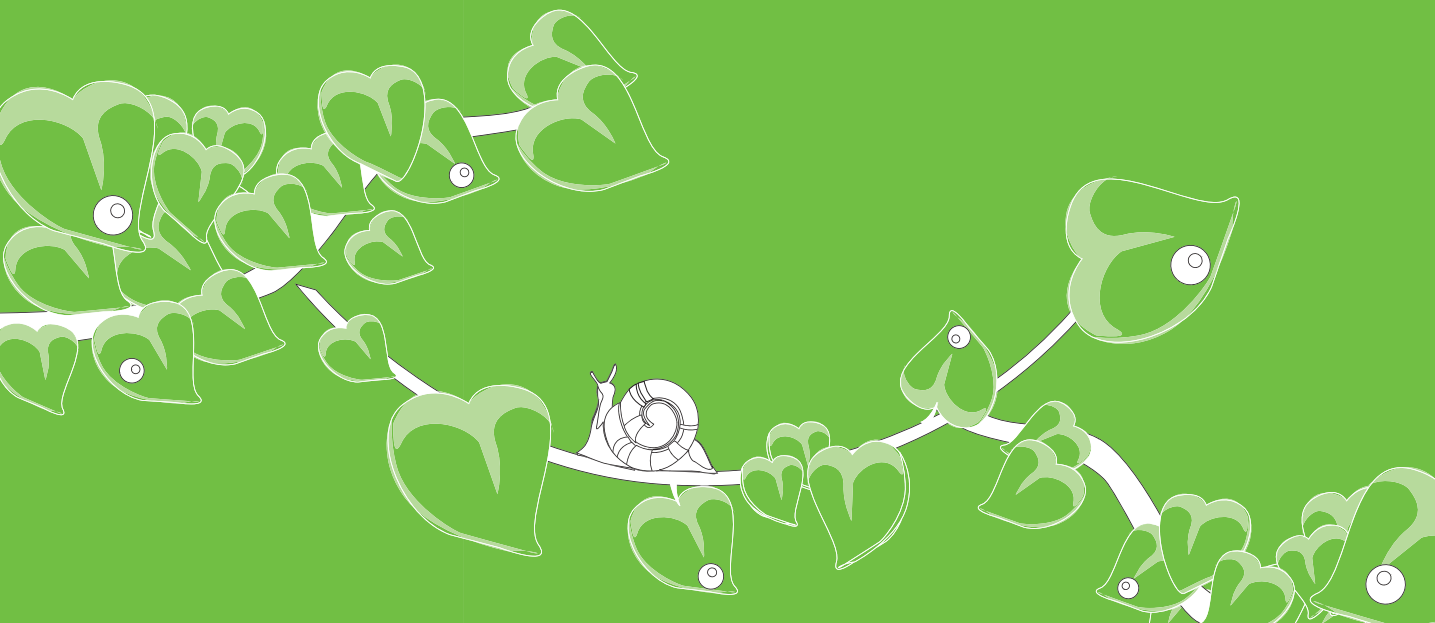
대학, 연구소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양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에의 포함,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 양성 등이 있으나, 어느 영역에서도 제대로 접근되고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 환경교육,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통합하여 재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양교육 강좌의 개설, 전문가 양성 과정에의 관련 교육 통합,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및 그 이후 과정 개설, 지속가능발전교육 특성화 대학 및 연구소 설치 장려 등의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 전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문화의 재정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이 가진 연구 역량을 이용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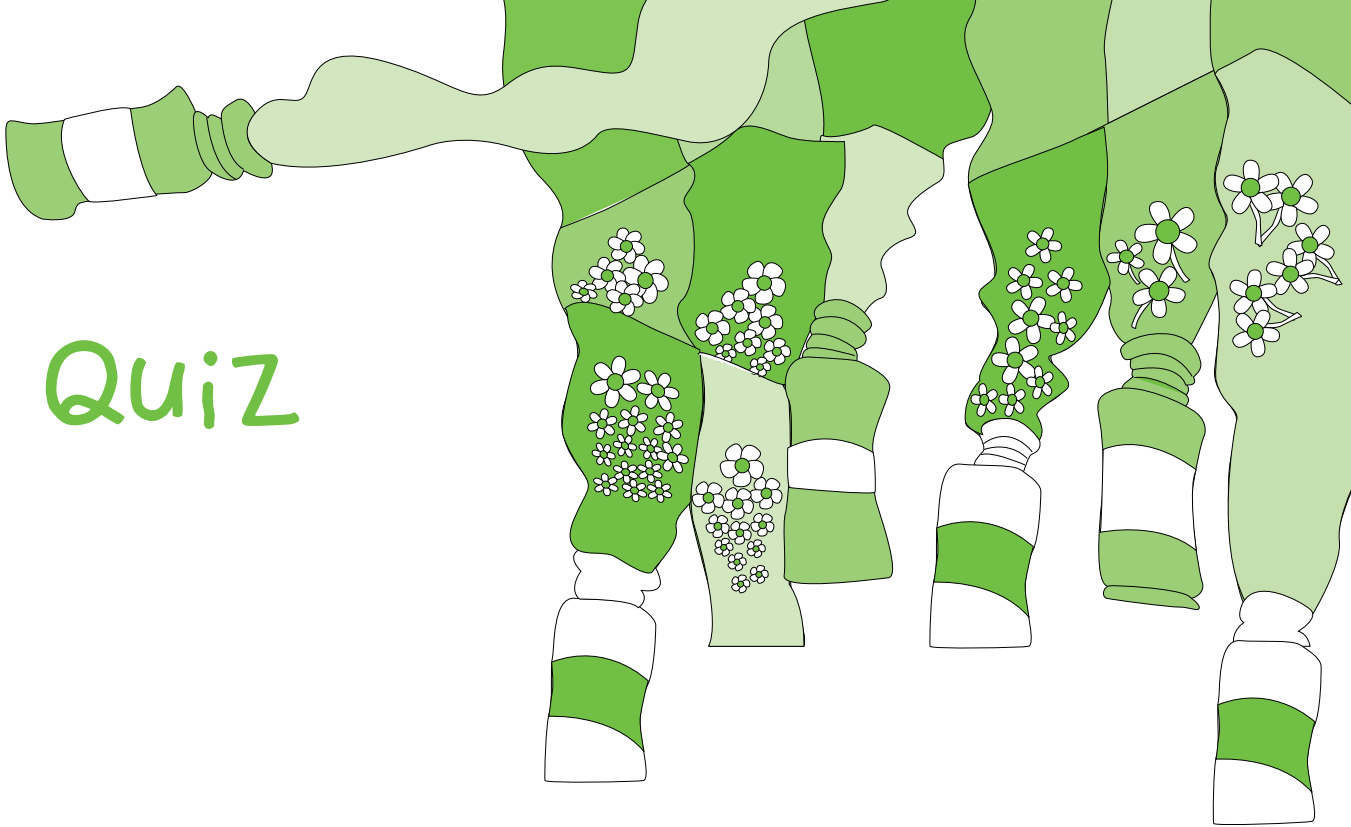
또한 고등교육기관이 가진 교육 역량과 연구 역량이 다른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노력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전문센터(Regional Center for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  
지





# Quiz

Q1 유엔이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선도가구로 정한 기구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Q2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중 교육, 연수 및 공공 인식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은 몇 장일까요?  
제36장

Q3 2005년 3월,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이 정식으로 출범한 나라와 도시는 어디일까요?  
미국 뉴욕

Q4 다음 3개의 회의를 개최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WSSD, UNCED, UNCHD)  
UNCHD(1972) → UNCED(1992) → WSSD(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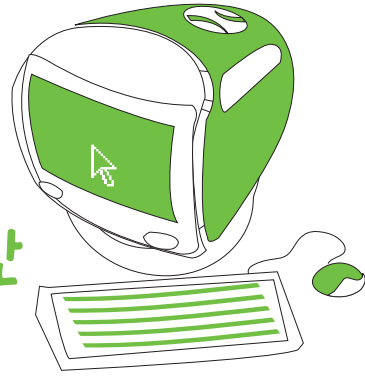
Q5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회의로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회의의 공식 명칭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구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Q6 1987년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가 발간한 보고서로서 일명 브룬트란드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보고서의 제목은?  
우리 공동의 미래

Q7 PCSD의 산업계 카운터파트이며 WBCSD의 한국측 파트너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체들의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Q8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로서 2005년 10월 14일,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개년 계획(DESD)'에 의거해 UN 대학으로부터 세계 8번째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센터'로 인증 받은 곳은?  
통영시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주요 웹사이트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이트**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esco.org/education/esd/>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동학교 사업  
<http://asp.unesco.or.kr/>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http://www.pcsd.go.kr/>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http://www.la21.or.kr/>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http://www.kbcds.or.kr/>

**환경부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  
지속가능발전교육 동영상 30편  
<http://www.keed.net/>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계획**

A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earning and sustainability in Canada  
[http://www.ec.gc.ca/education/framework/framework\\_k\\_overview\\_e.htm](http://www.ec.gc.ca/education/framework/framework_k_overview_e.htm)

**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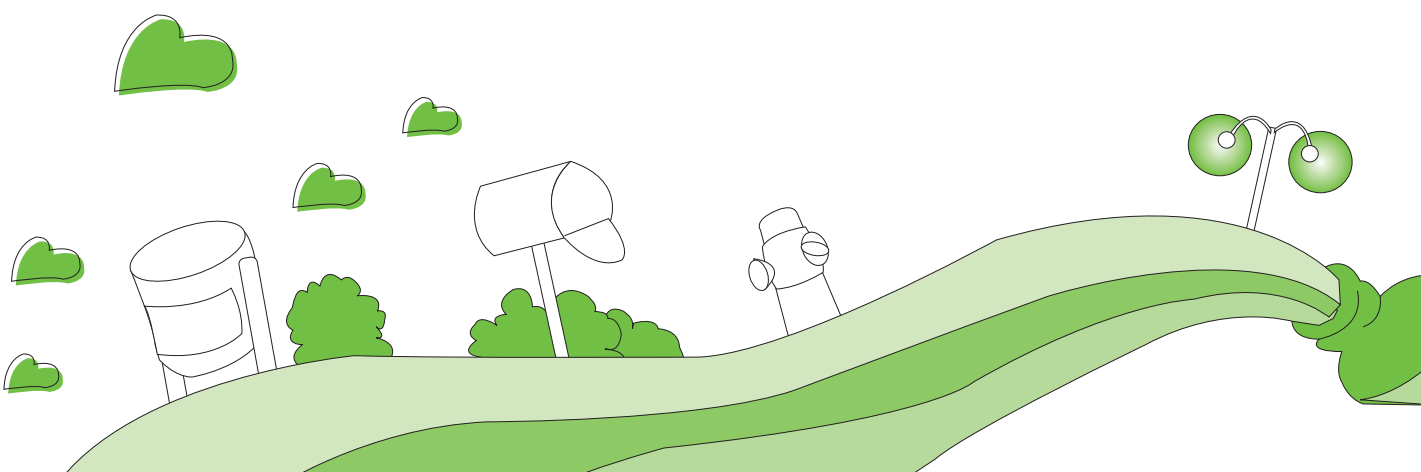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Panel  
<http://www.defra.gov.uk/environment/sustain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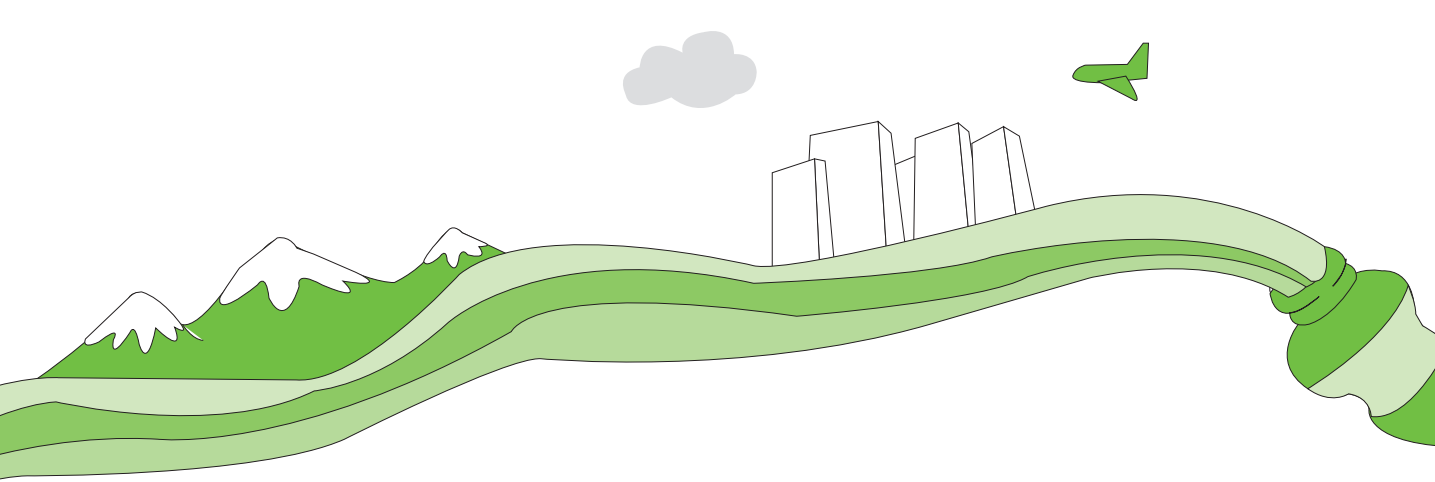
**호주 지속가능발전교육연구소**

Australian Research Institute i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http://www.aries.mq.edu.au/>

**미국 예일대학 환경지속가능성 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http://www.yale.edu/esi/>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최신 소식

###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 본격 추진

국제연합(UN)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교육도시로 인증받은 경남 통영시는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전문지식센터(RCE)'를 운영키로 했다.

통영시는 14일 오후 시청 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1차 통영 UN교육센터 포럼'에서 2008년까지 통영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속가능발전은 유엔이 내놓은 '미래세대를 위한 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란 개념으로 지역전문지식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정규·비정규 교육기관들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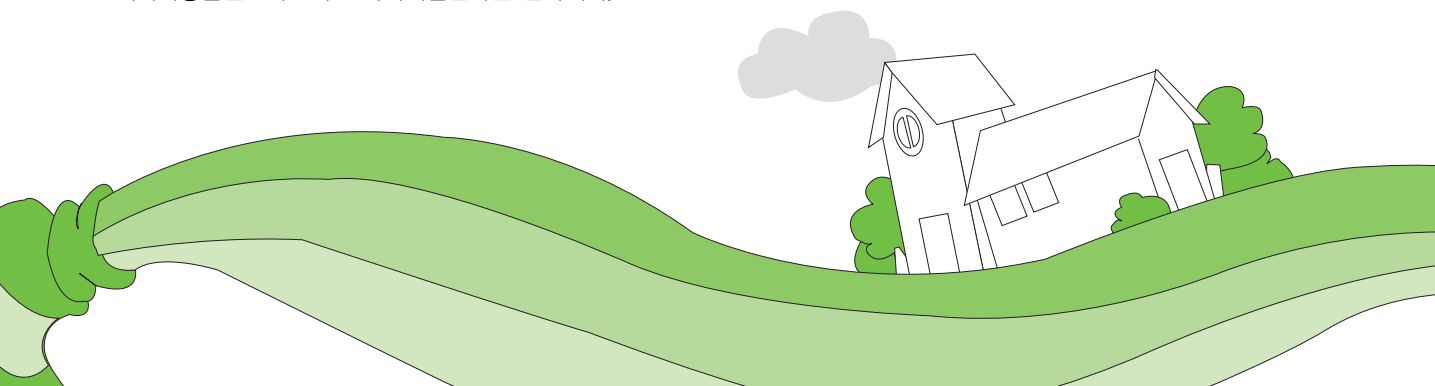
통영시는 2006년을 지속가능발전 교육시스템 구축 및 내 실 강화의 해로 설정하고 2007년에는 세계 RCE간 교류 확대, 협력사업을 추진해 2008년에는 통영시가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분기별로 1차례씩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통영지역 해양환경을 설명하고 교육할 '바다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3곳을 RCE연구학교로 지정해 해양환경과 전통문화, 국제이해 교육을 맡기기로 한데 이어 한 학기(4개월)당 3명 정도의 공무원을 연세대학교로 보내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유엔은 전 세계 10곳에 RCE를 설립키로 하고 일본 센다이와 오카야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말레이시아 팡낭, 유럽의 라인-무세지역, 캐나다 토론토, 피지를 비롯한 태평양 섬지역에 이어 지난 10월 통영을 세계 8번째로 지정했다.

2005.12.14 / 통영=연합뉴스 / 이정훈 기자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기구로서, 지역의 환경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정보 제공, 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해 200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사회, 지역기업 등 주요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파트너십기구이다. 2006년 2월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여개(약 76%)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정책개발 및 지원

- 지역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운동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지역 환경거버넌스 및 지속가능발전 실천평가지표 개발

### 캠페인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운동
- 지역 기후보호운동

### 지방의제21 네트워크 지원 및 활성화

- 전국대회, 정책포럼, 워크숍 등 개최
- 지역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운영
- 지방의제21 정보화시스템 구축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방의제21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역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방의제21 실천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